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 - 외환위기 이후 기억과 정동의 아카이빙

조 윤 정*

요약

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탄광 소설에 등장하는 산업 폐허의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글쓰기가 발전과 개발에 대한 성찰이자 기억과 정동의 아카이빙으로서 지닌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탄광 지역이나 사북사건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거나 광부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킨 작가 한강, 김도연, 김종광, 이옥수, 김금희, 김기태, 이문영, 최은미의 소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산업 폐허의 이미지는 글로벌 자본의 힘과 경제 불황이 초래한 불안과 배제를 한국의 탄소 에너지 경제의 역사와 겹쳐 읽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소설 속 폐광 도시의 이미지를 산업 폐허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작가들은 광부의 훼손된 몸으로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의 억압성, 탄광의 폐허화와 인간의 존재론적 박탈을 가시화했다. 또한, 폐광촌을 역사적이고 실용적으로 질서화하는 공공의 전략과 투기 자본주의를 소설에 투영하여 고통스러운 과거/영광스러운 역사, 범죄의 온상/점유의 욕망 등 폐허가 아끼는 모순된 총동과 끌림을 드러냈다. 소설에서 폐허는 해체, 재조립, 재해석된다. 작가들은 과거가 현재에 잔존하는 아나크로니즘적 시선을 보여주며 탄광의 이미지를 특정 시대의 증거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물들 사이의 연민과 환대로 폐광 지역을 추출의 논리 너머에서 사유하게 이끈다.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질적인 것들을 재배열하고 관계지음으로써 기존의 지배적 기억과 다른 역사적 진실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그러므로 이들 서사는 탄광 지역에 대한 기억과 정동의 해체적 기록이면서 지배 질서에 대한 카운터 내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러티브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폐광(촌), 탄광 소설, 광부, 폐허, 사복사건, 아카이빙, 기억, 정동, 카운터 내러티브

목차

1. 탈탄소 시대의 아카이브 총동
2. 폐광촌 산업폐기물에 투영된 산업전사의 늙고 병든 몸
3. 약속의 땅 위에 세워진 박물관과 관광 위탁 시설
4. 사복사건의 지배적 기억에 도전하는 카운터 내러티브
5. 결론

1. 탈탄소 시대의 아카이브 총동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탄광을 정리하고 석탄 생산 규모를 축소했다. 이 정책은 석탄의 과잉생산을 조정한다는 측면 외에 1970년대 잇따른 석유파동으로 국내 무연탄 생산 극대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국내 석탄광업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가령, 국내 무연탄 에너지 수요 감소와 무연탄의 과잉 공급, 국제 원유가의 안정세 지속에 따른 국내 유가 및 수입탄의 가격 인하, 탄층의 심부화와 탄질의 저하 등에 기인한 채탄 여건 악화, 재해 비용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난 가중, 정부 보조비에 의존하는 석탄 산업 유지의 부담, 영세 탄광의 난립으로 인한 생산성 제고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¹⁾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폐광에 따른 산탄 지역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 태백·정선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1, 41-52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편, 『석탄광폐광지원백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4, 77-78면.

정부가 비경제적인 탄광의 폐광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1988년 말 기준 전국 347개 탄광 중 307개 탄광이 폐광했고, 2025년 6월 30일 대한 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강원도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았다.²⁾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은 폐광, 감산, 인력 감축 등을 단행한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이었다. 이 정책의 시행은 단일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탄광 지역의 노동시장을 해체하고 촌락 공동체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³⁾ 광부를 산업전사로, 석탄을 산업의 쌀로 미화하던 에너지 담론은 “불황 막장”, “폐허 탄광촌”, “사양길”, “명예로운 퇴장”과 같은 용어들로 석탄 시대의 종막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⁴⁾

벤야민은 역사를 점진적이고 선형적인 사건들의 연쇄로 이해하기보다 폐허와 파괴가 반복되는 순환으로 간주하였다.⁵⁾ 그리고 진보라는 폭풍에 떠밀리는 역사의 천사가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곳의 잔해 속에 머물면서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 결합하고 죽은 자들을 깨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진보라는 환상을 폭로하기 위해 버려진 장소

2) 박형신, 「강원 폐광 지역의 지역 정치와 갈등 구조: 석탄 합리와 사업에서 카지노 건립까지」, 『사회와 역사』 66, 한국사회사학회, 2004, 160면; 최승현, 「마지막 국·공영 탄광 역사 속으로 도계광업소, 89년 만에 공식 폐광」, 『경향신문』, 2025.6.29.

3) 서봉만,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탄광촌 주민의 적응 양식」, 『지리학논총』 21,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1993, 82면.

4) 최창순, 「막장서 허덕이는 탄광촌」, 『동아일보』, 1990.8.12.; 김중화, 「광원 떠난 사택촌 폐허 방불」, 『한겨레』, 1990.4.17.; 최창순, 「탄광촌 불황 '막장'까지 갔다」, 『동아일보』, 1991.8.11.; 「사양길 탄광의 매물 참사」, 『동아일보』, 1996.12.14.; 이슬기, 「막장에서 '한강의 기적'을 쫓다」, 『한국경제』, 2023.7.2.

5) 벤야민은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를 해석하면서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쉽 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를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괴를 바라보고 있다. 천사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 일깨우고 또 산산히 부서진 것을 모아서는 이를 다시 결합시키고 싶어 한다.”고 썼다. 그는 천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 천사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해 그를 떠밀고 있으며,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이 이러한 폭풍을 일컫는 것이라 언급했다.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 테제」, 반성환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6, 348면.

들과 시대에 뒤쳐진 물질문화를 돌아보는 작가의 글쓰기와 닮았다. 폐광 시대의 탄광을 배경으로 광부와 광부의 가족, 광산촌과 그곳 주민들의 신산, 폐광촌의 변화를 형상화한 한강, 김도연, 김종광, 이옥수, 김금희, 김기태, 이문영, 최은미의 창작이 그러하다. 이들 작품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탄광을 둘러싼 소설 쓰기가 꾸준히 이어졌음을 보여주며,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쇠퇴의 흐름 속에서 작가의 글쓰기를 돌아보게 한다. 작품에 깃든 폐광 도시의 이미지는 에너지 경제 개편을 둘러싸고 일어난 인간과 비인간의 소외, 탄광 도시의 폐허화가 이끈 기억과 정동을 환기한다.

벤야민의 역사의식에 영향받은 케이틀린 데실비와 팀 에덴서는 벤야민에게 노후화는 구원적이고 해방적인 차원을 지닌 것이라 지적했다.⁶⁾ 몰락, 부서짐과 같은 폐허화의 과정은 대상의 ‘참된 내용’, 즉 ‘그 안에 담긴 비판적이고 유토피아적 계기를 풀어놓기’ 때문이다.⁷⁾ 폐허는 실현되지 못한 미래들—초기 자본주의가 약속했던 풍요와 안락이든, 사회주의가 제시했던 집단 노동과 평등의 비전이든 간에—그 미래들이 품었던 희망과 오만을 동시에 드러낸다.⁸⁾ 이러한 관점은 국가 부도 위기를 경험한 작가들이 탄소 자본주의의 역사 안에서 탄광 도시의 변화를 초점화한 작품들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시각을 제공한다.

1989년부터 2005년 사이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과 1997년 이후의 외환위기는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또한, 두 시기에 대한민국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추구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실업난을 경험했다. 탈산업화 또는 신자유주의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작가들이 탄광소설 속 폐광촌과 광부들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6) Caitlin DeSilvey and Tim Edensor, "Reckoning with rui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4), 2012, p. 468.

7) 그램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225면.

8) Caitlin DeSilvey and Tim Edensor, op. cit., p. 468.

비판적 성찰을 요청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석탄산업합리화와 외환위기는, 비경쟁적·사양 산업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노동과 자본을 재배치하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포함했으며, 그 과정에서 버려진 인프라를 낳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탄광 산업이 남긴 폐광, 폐사택을 비롯한 버려진 인프라의 흔적들은 경제적 쇠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다. 폐광은 무용한 공간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강조하는 기억과 물질성의 규범적 체계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항적 공간이 된다.⁹⁾ 산업 폐허로서의 탄광 관련 인프라는 분노와 저항을 동원하고 구체화하는 힘이 될 수 있으며, 상실의 고통스러운 상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른 한편, 폐광 이후 그곳에 들어선 대규모 관광단지는 해당 공간에 대한 기억 상실을 조장한다. 실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촌에 들어선 관광 레저 단지는 지역 경제를 희생시키고 고용 창출을 이끌 “꿈”이나 “IMF 시대의 ‘효자산업’”으로 부상했다.¹⁰⁾

폐광 위에 세워진 카지노가 석탄 시대에 대한 망각을 조장한다면, 석탄 박물관은 그 망각에 대항하는 아카이브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폐허 위에 세워진 박물관과 위락 시설을 이처럼 간단히 이분화할 수는 없다. 석탄박물관 역시 국가가 조장한 공식적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광부를 산업전사로 미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념과 관행에서 벗어난 기억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아카이브가 과거의 자료를 수집·저장하고 의미 부여하는 체계이지만, 국가·제도적 기억 장치로서의 공공 기록들이 이미 권력자들의 선택과 해석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카이브에 내재하는 파괴성과 폭력성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아카이브

9) Tim Edensor, *Industrial ruins: Spaces, aesthetics, and materiality*, Oxford: Berg, 2005a, p. 122.

10) 이기동, 「광산촌에 대형 관광단지」, 『매일경제』, 1995.5.1; 김형기, 「폐광촌 관광레저타운 “부푼 꿈”」, 『조선일보』, 1996.5.11; 「보령의 관광상품」, 『경향신문』, 1997.7.30; 홍두표, 「IMF 시대의 게임산업」, 『동아일보』, 1998.7.10.

를 탈구축하는 외부성을 강조했다.¹¹⁾ 폐광 시대의 탄광은 망각이라는 파괴 충동과 이에 대항한 보존 충동, 즉 아카이브 욕망을 불러일으킨 장소였다. 그런 맥락에서 탄광의 문학적 재현은, 지배적 해석을 거쳐 만들어진 기존의 아카이브를 탈구축하는 아카이브의 바깥(outside)이라 할 수 있다.

테리다는 억압된 진실은 유령적이며, 설명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유일한 인상과 흔적을 다시 체험하려는 자리, 그것이 바로 특수성(singularity)이며 문학적 증언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¹²⁾ 하지만 지배적인 기억 전략들은 유령 들린 장소들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령이 유동적이고 덧없는 존재이며, 기억의 수행, 서사, 경험이 공간 속에 고정되게 만드는 몰화(reification)를 교란하기 때문이다.¹³⁾ 폐광은, 끝났다고 여겨지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장소이다.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에 유령적 존재가 자주 출현하는 현상은, 탄광에 대한 기억이 경험되고 표현될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던 작가적 노력과 관계 맺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작가가 폐광촌을 배경으로 소설을 창작했으나, 그에 주목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창작된 탄광 소설이 지금까지 주요 연구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¹⁴⁾

11) 테리다는 억압에 그치지 않는 망각의 가능성 없이는 아카이브에 대한 욕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유한성이라 불리는 파괴 충동을 아카이브 충동이 내포하고 있기에 그는 이 내적 모순을 고려하여 아카이브 욕망을 “아카이브 열병(archive fever)”이라 일컬었다. Jacques Derrida,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trans. Eric Prenowitz, *Diacritics* 25, 1995, pp. 14-19.

12) 위의 책, p. 62. 테리다에 따르면, 인상과 흔적이 분리되지 않은 이 특수성을 충실히 기억하는 것은 반복 가능성(iterability), 즉 그 자체에 내재적 분열 가능성을 지닌 유령에게만 가능하다.

13) Tim Edensor, “The ghosts of industrial ruins: Ordering and disordering memory in excessive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6), 2005b, p. 829.

14)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조명기, 「국가의 트라우마와 소설의 대응」,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2011, 461-486면; 이한빛, 「노동운동 시대의 탄광 재현: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지 약 25년이 흐른 시점에서 탄광촌의 삶의 조건을 재현하거나 사복사건을 기억하는 소설들에 대한 관심은 탄소 자본주의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폐광의 개수, 폐광촌 인구 감소의 추이 등 숫자로만 드러낼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 분노, 열패감 같은 감정들을 가시화하고 산업 폐허의 문제를 쟁점화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원도 남부 탄광 지역의 폐광촌과 관련된 탄광 서사를 데실비와 에텐서의 폐허 이론에 착목하여 ‘산업 폐허’의 재현과 ‘기억의 정치’와 연결하여 논의한 신진숙의 연구¹⁵⁾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산업 폐허의 기억 경관을 둘러싼 대항 기억과 관련한 담론을 정리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둔 만큼 문학작품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 폐허로서 폐광촌과 광부의 몸, 폐광촌을 둘러싼 아카이빙 욕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누락된 작품, 최근 발표된 김종광, 김금희, 김기태, 최은미의 작품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여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 창작이 지닌 의미를 밝히겠다.

외환위기 이후 창작된 탄광 소설 속 폐광 도시의 이미지는, 국가의 경제 침체가 양산해 냈던 잔해들과 공명하고 있었다. 가령 문 단은 공장,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와 빌딩들처럼 구조조정의 불안정 효과가 가속화한 폐허의 생산은 일시적으로 광부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돌연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탄광에서 생존의 길을 찾았고,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탄광으로 향한 그들은 ‘막장’의 의미에 육박하는 삶을

‘사복사건’ 이후 탄광소설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1, 역사문제연구소, 2019, 135-175면; 홍용기, 「탄광문학에 나타난 ‘막장’의 장소성」, 『어문연구』 117, 어문연구학회, 2023, 321-339면; 김나현, 「탄광 노동 문학과 정동의 정치학: 산업화시기 탄광 노동 재현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7-34면.

15) 신진숙, 「탄광서사를 통해 본 산업 폐허와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30(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8, 74-91면.

살아내야 했다. 또한, 탄소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석탄의 위상 변화에 따라 폐광이 잇따르자 광부들은 다른 기술을 습득할 여유도 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거나 카지노 청소 노동자로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기도 했다. 광부의 존재론적 전이는 탄광 도시의 상권 쇠퇴 및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후 탄광 소설에 등장하는 산업 폐허의 이미지는 글로벌 자본의 힘과 경제 불황이 초래한 불안과 배제를 한국의 탄소 에너지 경제의 역사와 겹쳐 읽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발표된 탄광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폐광 도시의 이미지를 산업 폐허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때 폐허는 ‘도시의 효과적인 순환 체계와 생산 구조 밖에 존재하는 영역¹⁶⁾이다. 또한, ‘주어진 역할이 일시적으로 부재해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¹⁷⁾이기도 하다. 폐허로서의 탄광 지역은 자연 자원이 풍부한 환경인 반면, 도시 설계의 관점에서는 빈티이자 문제적인 공간이다. 작가들은 경제적 사용 가치가 퇴색한 실패와 방치의 상징, 지방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적 정체성의 증거였던 폐광을 서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로써 그곳에 거주하거나 지나가는 존재들이 경험하는 이질적인 물질성, 시간성, 공간성에 대한 복잡한 이해의 방식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강의 장편소설 『검은 사슴』(1998), 김도연의 단편소설 「기차가 사북을 지나간다」(2001)와 중편소설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2003), 김종광의 단편소설 「낭만 삼겹살」(2005), 이옥수의 장편소설 『내 사랑, 사북』(2005), 김금희의 「사북」(2013), 이문영의 르포 소설 「소리 잃은 검은 기침: 석탄」(2017), 김기태의 단편소설 「무겁고 높은」(2022), 최

16) Ignasi Solà-Morales Rubió, "Terrain vague," Davidson C. (ed.) In *Any Place*, Cambridge, MA: MIT Press, 1995, p. 120.

17) Tonnelat Stéphane, "Out of frame": The (in)visible life of urban interstice," *Ethnography* 9(3), 2008, p. 293.

은미의 「김춘영」(2025)이다. 이들 작품은 외환위기 이후 발표되었으며, 탄광 지역을 중심 배경으로 삼거나 광부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켰다는 특징을 지닌다. 폐허화되거나 용도 변경된 탄광촌을 배경으로 삼은 이들 소설을 통해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소설 속 탄광촌과 광부의 육체가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의 억압성을 가시화하는 장소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주목한다. 둘째, 폐광촌을 실용적으로 질서화하는 역사적 전략과 투기 자본주의의 서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셋째, 탄광 소설이 과거의 지배적 기억에 도전하는 카운터 내러티브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산업 폐허와 폐허화에 대한 작가의 글쓰기가 발전과 개발에 대한 성찰이자, 기억과 정동의 아카이빙으로서 지닌 의미를 밝히겠다.

2. 폐광촌 산업폐기물에 투영된 산업전사의 늙고 병든 몸

소설 속 공간은 특정한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설계되어 장소성을 확보한다.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은 그 장소 자체의 물질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둠이라는 상태를 피하기 어렵다. 우선, 어둠은 그 자체로 폐광촌의 현실적 암울함을 환기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를 “산업폐기물”에 비유하는 광부의 황폐한 몸과 마음에 이어진다. 그리고 어둠은 광부와 그 가족이 가난과 소외 속에 고립된 상태를 일깨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어둠은 작가가 탄광을 파고들어 드러내려는 인간 내면의 어둡고 숭고한 지점을 지시하기도 한다.

일찍이 한강은 첫 장편소설 『검은 사슴』을 통해 이 모든 어둠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작품은 사라진 ‘의선’을 찾아 나선 잡지 기자 ‘인영’과 그의 후배 ‘명윤’이 서울에서 강원도 폐광촌 ‘황곡’에 도착해 사진작가 ‘장’을 인터뷰한 후 의선의 고향집을 보고 돌아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선

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폐광촌의 과거뿐 아니라 인영, 명윤, 장의 과거가 전경화되어 그들이 각각 안고 있던 어두운 가족사가 드러난다.

같은 건물에서 일했고 심지어 한방에서 지냈던 의선이 갑자기 사라진 후 이들은 의선이 일하던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과 출신 학교를 바탕으로 의선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결국 그 정보 모두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이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어디에도 자신을 기입할 수 없었다. 의선의 비극적 삶은 광부였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비롯한다. 그의 아버지 ‘정’은 월산읍 함전 광업소 막장에서 동발이 부러져 천장이 무너져 내린 사고로 죽었다. 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정의 아내는 임신 중이던 아이를 조산하고 미쳤다. 같은 사고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목격한 ‘임영석’은,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읍내를 떠돌아다니는 정의 아내와 그의 아이를 거둔다.

남편을 찾으러 집을 자주 나갔던 의선의 엄마와 그녀를 찾아다니기 위해 광부 일을 그만두고 약초를 캐러 다닌 ‘임’ 사이에서 의선은 돌봄 받지 못한 채 병든 동생의 보호자로 살았다. 의선의 버려짐은, 인영과 명윤이 각각 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 이후 파탄 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떠안았던 사정과 비슷하다. 서울 한복판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에 잡혔던 의선을 인영과 명윤이 자기 방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갈 곳 없는 존재에 대한 연민이 의선에게 투사된 것이라 하겠다.

의선의 아버지 ‘임’의 죽음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막장에서 죽으며 “저 짐승 눈. 저 눈!”¹⁸⁾이라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임’이 후에 사진작가 ‘장’과 막장에 간했을 때 들려준 이야기에 등장하는 “검은 사슴”(243)의 눈이다. 깊은 땅속 암반의 틈을 따라 기어다니다 사는 이 짐승은 사방이 두꺼운 바위에 막혀 있어 자기 종족을 만난

18) 한강, 『검은 사슴』, 문학동네, 2017 [1998], 261면. 이하의 내용에서 작품을 인용할 시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하기로 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을 외톨이로 여긴다. 이 짐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광부들뿐이다.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늘을 보는 것이 소원인 짐승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지만 광부들은 사슴의 빨과 뽕족한 이빨을 뽑아낸 후 그것을 길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짐승이 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나오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결국 짐승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흐느끼고, 짐승의 살과 뼈는 검은 피와 눈물로 다 빠져나가 들쥐 새끼만 하게 쪼그러든다.

검은 사슴의 이야기는 탄광에서 생을 마감하는 광부들의 비극적 삶에 관한 유비이면서, 고향을 떠나 상경해 사무실 구석과 지하방에서 빛을 쫓던 의선의 삶을 상징한다. 그런 맥락에서 소설 속 ‘검은 사슴’은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에서 배제된 것, 존재 자체가 지워진 존재인 비체(卑體, abject)¹⁹⁾에 가깝다. 비체는 주체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광부는 산업 발전의 최전선에서 온갖 위험을 견디며 노동했으나 에너지 자원의 변화와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자다.

그리고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으나 세상에 이름조차 기입되지 않았던 의선이란 인물은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발전과 규제가 놓친 존재다.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방치되었으나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주변적 장소들에서 출몰하는 유령과 같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에서의 사건과 장소는 역으로 탈탄소 시대 서울과 폐광촌의 거리를 부각한다. 인영, 명윤, 의선이 고향을 떠나 일하던 서울은 폐광과는 물리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먼 거리에 놓여 있다. 인영에게 취재를 맡긴 잡지사 편집장의 말처럼 서울은, ‘관광도시로 활기차게 소생하는 폐광촌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이다. 무엇보다 서울은 주변부

19) 롭 닉슨, 김홍욱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예코리브르, 2020, 102면.

에서 생산된 동력을 끌어다 쓰는 중심부이다. 작가는 의선처럼 산업 폐허를 환기하는 유명 같은 존재가 출몰했다 사라지는 중심부 서울을 시작점으로 삼아 탈탄소의 미래 지향성이 가린 주변부의 현실에 다가선다.

한강은 인영과 명윤이 의선을 쫓는 과정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은 광업소 사무실, 사택촌을 전경화한다. 그 속에서 인물은 “옛날의 시간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것 같”다고 느끼며 “그 모든 소리와 풍경이 부서지고 때 묻은 채 천천히 부식되어 가고”(309) 있음을 감지한다. 그들이 목격한 산업 폐허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열망을 교란하는 구식이거나 무용한 물질과 의미의 과잉’이 끈질기게 처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²⁰⁾ 그것은 개발주의가 초래한 ‘생산의 잉여’이다. 개발주의란 “개발을 물신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성, 또는 경제 침체와 빈곤의 저주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저항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자연적인(심지어 신적인) 힘을 개발에 부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석탄이 개발을 추동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 탄소 자원을 정복하려는 과잉된 욕구를 추동한 것은 개발주의였다.²¹⁾

작가들은 이 개발주의를 비판하며 석탄이라는 물질의 행위성에 주목한다. 석탄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물질이다. 광범위한 자원 추출의 과정에서 석탄은 ‘열기’, ‘폭력’, ‘죽음’으로 의미화되는 강렬한 정동적 흔적을 남긴다. 탄광 소설에서 이 비인간의 행위성은 갱도 붕괴, 가스 폭발, 지하수 유입 등으로 전면화된다. 가령, 『검은 사슴』 중반부에서 폐광 후 방치된 갱도는 지반 낙하의 원인이 되고, 열차 탈선 사고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서사에 삽입된 이러한 사건은 재앙이 인재(人災)와 천재(天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며, ‘추출하는 자’와 ‘추출당하는 자’의 위치를 전복시키는 순간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

20) Tim Edensor, 2005b, p. 833.

21) 빅터 샤우, 이종식 역, 『탄소 기술관료주의』, 빨간소금, 2024, 35-36면.

므로 『검은 사슴』에서 어둠 속 검은 사슴이 ‘착취되는 자연’이자 ‘광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검은 사슴은 그 재앙 속에서 추출(당)하는 자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산업 폐허에서 일어나는 부서짐과 부식의 작용은 공간과 사물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인영과 명윤이 동네 주민에게 의선을 알 만한 사람으로 소개받은 ‘황영감’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거대한 폐사택촌의 적요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사무실이 을씨년스럽고 어두컴컴’하여 그들에게 “한기”(308)를 느끼게 했던 것처럼, 석탄공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퇴직한 황영감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와 “빠만 남은 몸”(300)은 인영과 명윤에게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을 안긴다. 이것은 잡지사 부장이 인영을 출장 보내며 ‘케케묵고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안 된다’고 말하며 “석탄산업의 사양과 함께 저물어가는 도시가 아니라 관광산업으로 활기차게 소생하는 도시의 모습을 담아와야 한다고”(22) 거듭 당부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전개다. 인영은 취재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황곡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한강이 가상의 지명 ‘황곡’을 내세워 들춰내려 했던 지점이다. 과거 석탄 시대의 기억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주변적 장소들에서 광부의 병든 몸은 개발주의의 이상을 교란한다.

진폐증으로 생기를 잃은 몸, 탄광에서 작업을 하다 불구가 된 몸, 육체적 고단함과 통증을 잊기 위해 마셔온 술에 중독된 몸, 탄갱에 갇혔다는 망상을 경험하는 몸은 대부분의 탄광 서사에 나타난다. 특히, 김도연의 중편소설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에서 “사북 전직 노동자 동맹(사노맹)”²²⁾을 결성한 알코올중독자 ‘박종포’와 한쪽 다리를 잃은 ‘황’, 착탄증을 앓는 ‘강’, 월남전에 참전했다 광부가 된 ‘김’, 탄광 사고로 남편을 잃은 ‘정선택’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사북 지역을 개발하려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들

22) 김도연,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 『십오야월』, 문학동네, 2005, 286면.

은 회화화되는데, 이들의 저항은 미력하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종광의 단편소설 「낭만 삼겹살」은 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병든 광부가 역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지내던 광부 ‘황씨’는 병이 다 나아 퇴원하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병세를 이어간다. 모아 놓은 돈이 없는 데다 퇴원해도 일자리를 찾기가 요원했기 때문이다. 탄광 회사에서 병원비와 가족 생계비를 지원받는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 황씨 가족이 벌이는 “사기극”을 병실 사람들은 알고도 묵인한다. 그들은 “가족의 사기극에 분노하는 대신 역누를 수 없는 연민에 사무쳤다.”²³⁾ 그들은 황씨가 이 진단을 받기까지 견뎌야 했던 긴 세월과 육체적 고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광부들에게는 병든 자기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병든 몸을 증명해줄 전문가의 발언이 필요했다.

사북 광업소가 문을 닫은 후 이문영이 전직 광부들의 삶을 취재하고 쓴 르포 소설 「소리 없는 검은 기침: 석탄」은 황폐해진 광부의 육체가 의료 통치 체제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채탄길을 내는 굴진 광부 ‘김길병(가명, 61세)’은 착암기 소리에 난청을 얻고, 착암기 진동으로 손이 마비되었다. 하지만 그는 보상도 치료비도 받을 수 없다. 진폐증 진단을 받으면 급수에 따라 위로금이 나오고 합병증이 확인돼야 무료 입원이 가능하지만 그는 진폐증이 아니라 “진폐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증은 무슨 지랄 같은 의증이난 말이지. 진폐증이면 진폐증이지 진폐의증은 뭐난 말이지. 감기든 암이든 걸리면 환자 아니냐고. 진폐증이면 진폐 환자인데, 진폐의증이면 진폐 환자나 아니냐. 이게 상상임신 같은 거난

23) 김종광, 「낭만 삼겹살」, 『낙서문학사』, 문학과지성사, 2006, 157면.

말이지. 옆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오늘 내일 하는 인간들 말이지. 니 앞날이고 내 미래다 그 말이지.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 환절기 때 안 보이면 여기 와있는 거라. 여기 있다 또 안 보이면 관에 넣어져 망치질된 거라. 우린 산업폐기물 아니나. 누가 나 진폐증 좀 만들어 도라.”²⁴⁾

‘김길병’이 쓴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찌꺼기”를 가리키는 말로, “평생 광부로 살다 진폐·규폐증을 얻은 광부들이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며 쓰는 말”(42)이다. 이는 진폐증을 앓는 광부의 이야기인 동시에 물리적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운명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보인다. 자신의 삶 자체를 사물화하는 그의 발언에는 산업전사였던 광부를 석탄 에너지 추출의 도구로 사용하고 폐기해 버리는 국가 정책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다. 그는 사복 동원탄좌가 문을 닫고 광부들을 몰아내자 장성광업소에 하청으로 들어가 1년 단위 계약으로 연명했다. 매일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계속 석탄을 캐던 것이다. 여기에는 실직의 공포뿐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삶을 정상성과 동일시하는 노동 의식이 작동한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근면 성실을 삶의 기본 가치로 주입받았던 김길병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무서운 병에 걸리길 바란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에서 그는 죽음을 앞둔 과거의 동료에게 자기 미래를 비취본다. 그러므로 이문영이 기록한 광부의 목소리는 일할 권리와 아플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의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진다. 누군가 폭력을 끝낼 유일한 방식으로 자기 삶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정치적 주장으로 바꾸는 행위이다.²⁵⁾ 그것은 폭력을 허용하는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살

24) 이문영, 「소리 잃은 검은 기침: 석탄」, 『웅크린 말들』, 후마니타스, 2017, 47면.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겨레21』에 연재된 ‘이문영의 한겨레어사전’에 기반하고 있다.

아갈 수 없다는 항변이기 때문이다. 김길병과 한 병실에 있는 ‘안대성(가명)’ 같은 인물은 ‘강원랜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재계약에 실패해 탄광으로 다시 돌아와 사고를 당한다. 그는 ‘김길병’에게 무서워서 더 이상 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호소한다. 석탄에서 얻은 막대한 에너지로 건설된 사회-기술적 세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에너지를 추출하는 노동자 보호의 기술에는 취약하고 무심했다.²⁵⁾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작가들은 전직 광부의 훼손된 몸으로 탄광의 폐허화와 인간의 존재론적 박탈을 드러낸다. 소설 속 광부들에게는 폐광에 따른 여러 차원의 전치(displace)가 일어난다. 첫째는 직장 상실이고, 둘째는 사택으로부터의 쫓겨남이고, 셋째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노동에 종사하며 겪는 존재의 전치이다. 그리고 광부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전치는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과 견뎌야 할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했다.

3. 약속의 땅 위에 세워진 박물관과 관광 위락 시설

공업화의 상징이었던 광업소가 있던 지역은 한때 “미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폐광한 자리에는 석탄 박물관과 카지노, 숙박 시설 등 관광 위락 시설이 들어서 이제 해당 지역은 휴양지로 불린다. 강원도와 보령 지역을 배경으로 둔 소설에서 작가들이 관광지화된 탄광촌을 재점화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외환위기 이후 작성된 소설들에서 탄광촌은 석탄박물관과 카지노의 시간성

25) 김은정, 강진영·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264면.

26) 티머시 미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역, 『탄소민주주의: 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생각비행, 2017, 21면. 티머시 미첼은 석탄 기술의 취약성이 역으로 민주적 요구들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사이에 놓여 있다. 한쪽이 진보의 이념에 따라 시계열화되어 폐광 직전에 멈춘 탄광촌의 과거를 가리킨다면, 다른 한쪽은 시계조차 걸지 않은 채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인공 태양의 세계이다. 작가들은 이 두 시간성 속에서 폐광촌의 변화를 쟁점화하고 주민들의 노동 현실을 고발한다.

한강의 『검은 사슴』에는 인영이 황곡에 처음 도착해서 느낀 “이상한 친밀감”이 묘사된 장면이 있다. 여기에는 황곡의 황폐함과 인영의 내면이 겹쳐 있다.

문득 이 도시가 나에게 무척 낮익게 느껴졌다. 아니, 처음 역에서 내렸을 때부터 이 도시의 무엇인가가 이상한 친밀감을 불러일으켰었다.

무엇 때문일까.

이 도시는 어둡고 고요하고 검었으며, 시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들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내가 살았던 공간에서 버림받은 것들이 모두 모여 이루어진 다른 공간 같았다. 아니, 땅 위 세계의 반대편으로, 지구의 핵을 향해 컴컴한 그림 자처럼 드리워진 도시 같았다.

날씨 탓이었겠지만, 마치 땅속에 걸린 인공의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듯이 이 도시의 공기는 어둑어둑하고 답답했다. 마치 두꺼운 땅을 비집고 어디론가 나가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나가고 나면 진짜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²⁷⁾

황곡은 가상의 지명이지만, 인물들이 소설에서 방문하는 석탄박물관, 탄광의 운영 여부, 광업소 사택 등을 고려하면 강원도 태백을 떠올리게 된다. 태백은 한강이 소설을 쓸 당시에도 장성광업소 등 몇 곳의 탄광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보탄광 사택이 남아 있었다. 인영의 시선에 포착된 이 도시는 어둡고 고요하고 검었으며, 거의 모든 곳이 버려진 인상을 준

27) 한강, 앞의 책, 232면.

다. 그 황폐함을 그는 “자신이 살았던 공간에서 버림받은 것들이 모두 모여 이루어진 다른 공간”이라 표현했다. 인영이 서울에서 지냈던 점을 감안하면, ‘황곡’은 도시에 들어설 수 없는 것들, 들어섰더라도 버려지고 밀려난 것들이 모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강의 소설에서 그 주변성이 일으키는 어두움과 답답함은 의선을 향한 인물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외진 시골로 이동할수록 희미해져 오히려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경향은 한강 소설이 발표된 시점과 관련된다.

정부는 폐광지역 개발과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고,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199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 폐특법 시한이 종료되었다. 정부는 고원지대인 폐광 지역의 특성상 스키장, 골프장, 카지노 등 관광사업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²⁸⁾ 기반 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석탄박물관이 1997년 5월 개관했고, 강원랜드 카지노호텔이 2000년 10월 개장했다. 1998년 발표된 『검은 사슴』에는 석탄박물관은 등장하지만 카지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나 그 현실적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검은 사슴』 이후 발표된 탄광 소설에는 대부분 카지노가 중요 장소로 등장한다. 그리고 카지노호텔이 동원탄좌 지장산 사택지구²⁹⁾에 들어섰기에 카지노에 관한 작가의 의식은 폐사택의 문제와 연동된다.

카지노가 개장한 2000년 10월, 미디어에서는 카지노가 회색 도시 사북·고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질문하며 사회적 우려와 기대를 함께 드러냈다.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놀았다’던 탄광촌의 옛

28) 백승훈 외 4인, 「벼랑에 선 탄광촌 사북 사태 현장 진단 (하): ‘특별대책’ 지역 경제 회생 시킬까」, 『동아일보』, 1995.3.5.

29) 동원탄좌가 사북읍 일원에 건립한 주거시설은 총 450개 동 2,500여 세대에 달했다. 그중 지장산 사택지구에는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호텔이 들어섰고 북부사택단지에는 정선군 보건소와 메이힐스 콘도가 지어졌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읍지』, 정선군 사북읍사무소, 2012, 146면.

영화 그리고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카지노 건립에는 유사 점이 있다. 바로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안아야 할 위험부담이다. ‘석탄박물관과 카지노 설립은 정부가 폐광촌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뜻에서 추진된 사업’³⁰⁾이라는 논리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혜성 논리는 폐광촌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광부와 그의 가족들의 처지와 감정들을 지워버린다.

김종광의 「낭만 삼겹살」은 보령 폐광촌 꼭대기에 들어선 레저시설과 그 아랫마을 안골에 사는 전직 광부들의 고된 인생살이를 통해 그러한 개발주의의 이면을 들춘다.³¹⁾ 이 소설에는 진폐증으로 병원살이를 하다가 3개월이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집으로 돌아온 전직 광부 ‘황 낭만’, 광부 일을 그만두고 여러 해 전부터 죽은 가족의 영혼과 같은 “헛것”(135)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는 ‘김 사또’, 전직 광부였던 아버지가 부자의 차에 치여 죽은 후 그 보상으로 운 좋게 관광단지 소장 자리를 얻게 된 인물 ‘차상갑’이 등장한다. 관광지화된 폐광촌에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며 “낭만 타령”(142)을 하거나, 무시로 찾아드는 귀신들을 견디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그것을 드라이브라 칭하고, 관광단지 사장의 지인들에 밀려 숙박 취소가 된 개인 고객의 데모에 대응하며 진땀을 빼며 살아간다.

이들은 저마다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과거는 고된 노동과 가난으로 점철되었기에 과거를 적극적으로 그리워하는 향수를 보여주진 않는다. 대신 이들은 서로의 허세와 자기 위안을 이해해 주며 현실을 정서적·이상적으로 대하는 ‘낭만’을 택한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30) 이준호, 「죽음 도사린 탄광 막장 인생 담고 싶어: 내달 초 개관 석탄박물관 전시 전문가 유부원 씨」, 『경향신문』, 1997.4.4.

31) 김종광의 「낭만 삼겹살」은 보령 지역을 배경으로 둔 소설로, 카지노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령에는 국내 최초 석탄박물관이 있으며, 작가가 폐광촌에 들어선 레저시설을 중요한 사건의 장소로 삼아 소설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 장에서 다루었다.

관광지화된 폐광촌에 ‘황낭만’이 개사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은, “비에감(과거)과 해학(현재)이 단번에 뒤섞여서 울림”³²⁾을 준다. 그들은 개발주의가 내건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절박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낭만적으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한다. 이들의 낭만은 저항과 투쟁이 불가능한 폐광 시대, 그나마 집과 가족을 가진 전직 광부들과 그의 자식 세대가 사회적 박탈감을 견디는 방식이다.

김도연의 중편소설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 이문영의 「소리 없는 검은 기침: 석탄」은 폐사택에 사는 사람들을 그린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광원들이 서서히 떠나가면서 공가 사택이 늘어갔고 점차 폐허로 변하면서 이 장소들은 탄광 지역의 쇠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흉물이 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사북 지역 사택은 1990년대 중반부터 철거되기 시작하여 2003년 4월 북부사택 철거로 이어졌고, 1988년 완공된 동원아파트는 2014년 철거되었다. 수도와 전기마저 끊긴 곳에 사는 이들은 “비거주자”, 즉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분명 거기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폐사택에서 살아가는 유령 같은 존재로, 비가시성의 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의 폭력적 전환 속에서 이들은 ‘진보’를 휘방 놓는 존재로 치부된다.³³⁾

김도연은 폐사택에 살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개발 정책에 항거하는 전직 광부 및 광부의 아내를 그린다. 실제 1995년 사북 지역에서는 주민생존권확보 쟁기대회, 사북 고한 탄광 노동자 생존 결의대회가 있었다. 김도연의 소설에서는 카지노가 들어선 이후까지 서사 시간이 확장되었으므로 작가는 특정 사건을 차용한 허구의 서사를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1995년 사북에서 있었던 상여 행진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집단적 움직임을 재현하되, 그 대회에 참여한 “사노맹(사북전직노동자동맹)”, “폐

32) 정여울·신형철·복도훈·김미정, 「좌담: 상처의 승화에서 욕망의 잔혹극까지: 2005년 가을의 한국소설」, 『문학동네』 45, 문학동네, 2005.

33) 룩 닉슨, 앞의 책, 261-262면.

광 반대 대책위원회”(323) 등 단체 간 갈등을 구체화했다. 폐사택에 거주하며 지역 개발에 반대했던 사노맹은 결국 ‘동원탄좌에서 내려온 철거반원 깡패들’과 “공룡 같은 포클레인”(324)에 밀려 결국 쫓겨난다. 작가는 이들의 마지막 투쟁과 그 참혹한 최후뿐 아니라 그들의 투쟁을 “당랑거철(螳螂拒輻)”에 빗댄 “구경꾼들의 무관심”을 강조했다.

폐사택에 몰래 숨어 사는 사람들을 그린 이문영의 르포 소설은 바로 그러한 힘의 불균형과 주민들의 냉혹한 무관심을 한 차례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문영은 폐사택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강원도 지역 방송이나 전국 단위의 공중파 방송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곳이 “다만 집이어서 살았다”(21)고 말할 수밖에 없는 광부의 삶을 초점화했다. 이 문장은 초점화된 인물이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다만 집이 없어 그 집에서 살았다”(24)의 형태로 변주된다. 작가가 소설에서 직접 인용한 뉴스에서 폐사택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며, 지역 자생력 확보에 차질을 빚기에 서둘러 철거되어야 할 “음산한 흉물”(24)로 묘사된다. 뉴스 리포터가 강조하는 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강원랜드 입구에 위치한 이 “폐가”가 도시 미관과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 서사에는 ‘비거주자’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앞서 우리는 석탄박물관과 카지노의 두 시간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폐광촌 주민들은 이 시간성의 질서에 영향받으며 희망보다 낭만에 간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박물관이 기념해 놓은 석탄 호황 시대를 추억한다. 그리고 휴양지로 개발된 후 정작 주민들은 누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린 약속의 땅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이 만든 미래에서 강원랜드 정규직이 된 광부는 한 명도 없었다.”³⁴⁾는 이문영 소설 속 인물의 독백은 동원탄좌 광부에서 하청업체 광부로, 다시 카지노 하청업

34) 이문영, 앞의 책, 28면.

체에 고용된 계약직 청소 노동자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전직 광부의 고용 불안을 폭로한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 불안정성과 공명한다. 더욱이 이들의 노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의 내용과 달리 “일반 정비”[청소나 “기물 정비”]설거지로 변해가기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은폐하기 위해 거대 자본이 작동시킨 조어(造語)의 질서가 현실을 더 비루하고, 타개하지 못할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도연, 김금희, 김종광, 김기태의 소설이 쟁점화한 석탄박물관과 카지노 문제는 지역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게 한다. 김도연은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에서 석탄박물관이 광부의 삶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석탄박물관의 탄갱 사고 체험실에서 착란을 일으켜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광부 마네킹을 내던지는 사노맹원들의 모습은 광부의 트라우마를 가시화한다. 그리고 이들을 그리는 작가의 시선은 박물관이 지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치인과 전시 전문가의 발언을 전복한다.

김도연은 「기차가 사북을 지나간다」에서도 전직 광부였던 인물 ‘그’를 통해 카지노가 “광부들의 무덤 위”³⁵⁾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이 작품에서 전직 광부의 카지노 베팅은 사북 항쟁 때 아들을 잃은 광부가 가족을 떠나 스스로 사북에 고립되었다는 망상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생산력을 상실한 전직 광부는 카지노 위에서도 갱도의 열기를 느끼고, 죽은 아들의 영혼과 만나기도 한다. 무덤 위에 세워진 카지노라는 인식에서 알 수 있듯, 투자 유치의 경쟁 속에서 지역적 필요와 우선순위는 무시된다. 작가는 이러한 변화를 상실의 서사로 쓰며, 가난하지만 특별했던 도시가 사라지고 있음을 기록한다.

탄광촌 개발을 둘러싼 공간의 변화는 복잡한 시간성을 안고 있다. 폐광 시대의 탄광 서사는 새로 들어선 건물들을 묘사하지만, 그 지역에 많은

35) 김도연, 「기차가 사북을 지나간다」,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학동네, 2002, 109면.

장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환기하기도 한다. 그러한 공간들의 지속은 도시 변화의 불규칙한 속도, 즉 곳곳의 단절과 지연으로 가득한 상태를 드러낸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개발 과정조차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층에 또 하나의 층을 더하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과정임을 시사한다.³⁶⁾

그런 맥락에서 김기태의 소설 「무겁고 높은」은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소녀의 관점으로 폐광 지역에 대한 세간의 기대를 내파하고, 폐광 지역을 주변화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을 회귀한 것으로 만드는 공공성 그 자체임을 드러낸다. 「무겁고 높은」의 주인공 ‘송희’는 광부들의 작업화 소리를 “이 동네 학생이라면 으레 서너 번쯤 견학하는 석탄박물관에서 들었다”고 말한다. 폐광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아버지 세대의 전성기는 박물관에 전시된 화석처럼, 기억되거나 감각될 수 없는 영역에 놓여 있다. “‘광부’라는 단어는 종종 ‘전사’나 ‘백정’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241)는 송희의 말은, 석탄 자원으로 호황을 누렸던 탄광촌의 과거가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자조를 담고 있다.

해가 기우는 산등성으로 카지노가 보였다. 먼 나라의 성처럼 과장된 모양의 꼬트머리는 근방 어디서든 눈에 띄었다.

용감하면 카지노 손님이 되고, 똑똑하면 카지노 직원이 된다.

이따금 교사들조차 그렇게 말했다. 용감하지도 똑똑하지도 못한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송희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든 팔았다. 밥을 팔고 술을 팔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쉬쉬하는 것을 팔았다. (중략)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는 버려진 자동차들이 많았다. 주인도 찾아가지 않고 어디에 팔리지도 못한 것들. 먼지가 싸인 차창에는 ‘병

36) Kenny Cupers and Markus Miessen, *Spaces of Uncertainty: Berlin Revisited*, Basel: Birkhäuser, 2018, pp. 21-22.

신'이나 '섹스' 같은 낙서. 밤이 되면 문이 열리는 차 안으로 숨어드는 아이들이 있었다. 송희도 그랬던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짓은 유치하지만, 공터를 지나 닿는 오래된 철교는 여전히 좋아했다.³⁷⁾

지역 상실을 조장하는 개발의 속도는 카지노를 “ 먼 나라의 성 ”으로 과장하고 미화하면서 주민들을 이전과 다른 노동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카지노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게 만들었다. 폐광촌의 이러한 분위기는 체념의 정서를 낳고, 공터에 버려진 사물들은 금기와 권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희의 소재로 활용된다. 이 작품에서 송희는 “오래된 철교”를 좋아하고, “개천과 덩불 사이의 버려진 의자”에 앉으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이러한 대상들에 송희가 느끼는 호감은 과거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버려진 것이어서이기에 ‘향수’라 지칭될 수 없다. 여기에는 오래 방치된 것들, 버려진 것들에 혐오나 공포를 덧씌우는 개발주의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질적인 물질성이 있다.

해마다 한 번씩 취재팀이 산골 학교의 역도부에 찾아와 “오늘도 미래를 듭니다”(250)와 같은 건설적 자막을 넣은 영상을 만들지만, 정작 송희가 역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들었던 바벨을 ‘버리기’ 위해서다. 폐광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 자기에게 무심한 아빠와 같은 성장환경 속에서 송희는 항상 버려진 존재였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이 송희가 ‘역도를 그만둔 날’로 끝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송희는 무언가를 무리해서 들지 않고도, ‘미래’와 ‘희망’ 같은 것들의 무게를 견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생산의 순환체계 바깥, 과거와 미래의 틈새인 폐광촌에서 송희는 무겁고 높은 것들과 결별하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으며 온전한 “내 몫”의 삶을 긍정하게 된다.

그에 반해 “ 먼 나라의 성 ”처럼 보이는 카지노는 생산이 박탈된 주체의

37) 김기태, 「무겁고 높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242-243면.

욕망이 그 결여를 메우기 위해 이상화된 미래, 더 높은 미래를 향해 자금을 투입하는 장소이다. 카지노는 투기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투기자본주의의 핵심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모든 평가 기준을 결정짓던 생산 조건이 바뀌리라 믿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나쁜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새로움과 경제적 불연속에 대한 약속은 미래가 처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상화된 미래는 현재를 흡수하고 과거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³⁸⁾

김금희의 소설 「사북」은 사북에 흘러든 투기자본주의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그’는 출판사 사장이었지만 도박중독자가 되어 가족과 떨어져 사북의 리조트 편의점에서 일한다. ‘그’는 일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를 읽는다. 작가는 ‘그’의 스토리와 『드라큘라』의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겹쳐 제시한다. 드라큘라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영생을 갈망하며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이다. 작가는 주인공 ‘그’의 의식을 통해 『드라큘라』 속 드라큘라 성이 사북 숲의 카지노와 같다고 묘사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구조는 결여/부채를 채우기 위해 투기자본주의의 재귀적 순환구조에 빠져 카지노를 찾는 신자유주의 시대 인간의 무한 욕망을 부각하기 위한 설정이다.

소설에서 ‘그’는 고립된 드라큘라 백작에게 자기 삶을 투영하지만, 드라큘라 백작처럼 성을 떠나지 못한다. ‘그’의 편의점 월급은 몇 분 만에 카지노로 빨려 들어갔고,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일수록 사북에 오래 남는 법”(241)이기 때문이다. 카지노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사북에 붙들어놓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사북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³⁹⁾ ‘그’가 교회의 단도박 모임에서 “여러분은 이상한 사북 나라에 와 있습니다”(248)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낭패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38) 피에리이브 고메즈, 김진식 역, 『투기자본주의: 성장의 약속은 계속될 것인가』, 민음사, 2024, 65-68면.

39) 김금희, 「사북」, 『센터멘털도 하루 이틀』, 창작과비평사, 2014, 241면.

느끼는 것은 그가 “너무 먼 곳”에 와 있다는 자각 때문이다. 김금희의 「사복」은 광부들이 떠난 자리를 메운 편의점 노동자이자 도박중독자 ‘그’를 통해 사업 실패 이후 가장이 감당해야 하는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와 심정적 거리를 극복될 수 없는 ‘상실’의 문제로 다룬다. 그리고 그것은 카지노가 앞세운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활기를 앞세운 개발의 논리를 돌아보게 한다. 탄광의 생산력주의와 카지노의 투기자본주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장소와 형태를 바꾸었을 뿐, 광의의 차원에서 ‘추출주의’를 공유한다.⁴⁰⁾

이처럼 폐광촌을 배경으로 둔 서사에서 정치적 가정들과 욕망은 산업 폐허에서 나온 물질들이나 폐허 위에 세워진 장소의 효과를 통해 드러난다. 그것들은 공간과 물질성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경험되며, 상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유를 촉발한다.⁴¹⁾ 산업 유물로서의 폐광은 합리화 정책하에 밀려난 에너지원이라는 주변적 지위를 떨쳐내고, 과거의 산업적 위대함을 기리는 기념물로 재탄생하거나 주변의 자연 자원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가운데 카지노로 대체된다. 탄광 소설에 대부분 등장하는 석탄 박물관과 리조트는 한때 무용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유물들이 지역 재개발 및 재브랜딩 계획의 중심축이 된 상황을 비춘다. 그런 맥락에서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은 버려진 부지를 범죄 및 일탈 장소로 바라보는 시선을 교란하고, 이 부지를 생산적인 공공자원으로 되찾으려는 관리주의적 공공담론에도 맞서는 역할을 한다.

40) 추출주의는 자원을 대량으로 채굴하는 것을 넘어, 어떤 요소를 수단화해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모델이다. 생산력주의는 생산력 극대화를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투기자본주의는 부채와 위험을 매개로 자산 가격 변동에서 가치를 추출하여 이를 이익으로 축적한다. 생산력주의와 투기자본주의는 자연과 노동, 자산, 무엇보다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확장된 의미의 추출주의를 공유한다.

41) Tim Edensor, “Waste matter: the debris of industrial ruins and the disordering of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0(3), 2005c, p. 330.

4. 사북사건의 지배적 기억에 도전하는 카운터 내러티브

탄광 지역을 둘러싼 공공 담론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북사건’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소설들 중 김도연의 「기차가 사북을 지나간다」와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 이문영의 르포소설 「소리 잃은 검은 기찻: 석탄」, 이옥수의 『내사랑, 사북』, 최은미의 「김춘영」은 소설의 중심에 ‘사북사건’을 두고 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21일~24일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광부와 주민들이 어용노조지부장 사퇴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와 시위이다. 광부와 경찰의 부상, 어용노조지부장 부인의 린치 사건으로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폭동’, ‘폭행’, ‘난동’으로 인식되었다. 이 사건을 ‘사태’라 규정하며 ‘폭력적 상황’에만 주목해 오던 시각을 전복하기 위해 그간 지역 주민과 학계는 광부들이 처했던 상황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다.⁴²⁾

2025년 10월, 사북사건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1980 사북〉(박봉남 감독)이 발표되었다.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 지역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항쟁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던 국가의 폭력을 추적하고 기록한 이 작업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론화하려는 욕망을 반영한다. 올해 김승옥 문학상을 수상한 최은미의 소설 「김춘영」을 감독의 다큐멘터리 욕망에 겹쳐 보면 명징해지는 것이 있다. 지배적 기억을 거슬러 진실을 보존하려는 아카이빙 열망은 그 자체에 망각이라는 파괴 충동을 내포하기에 특정 사건은 반복적이고 중층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외환위기 이후 여러 작품이 사북사건을 서사의 중심에 두었으며, 이 작품들은 소설 「김춘영」이 왜 우리에게 도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

42) 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사북·고한 역사 연구』, 선인, 2001; 황인옥·박다영·한정원, 『사북항쟁과 국가폭력』, 지식공작소, 2021; 역사문제연구소민중사반사북팀 편, 『1980년 사북 항쟁과 일상의 사회사』, 선인, 2021.

준다.

「기차가 사북을 지나간다」는 사북사건 당시 광부였던 남성이 투쟁 중에 아픈 아들을 잃은 후 아내와 딸마저 버려둔 채 혼자 지내며 도박을 하는 이야기이다. 사건이 있은 후 20년간 주인공 남성 ‘그’는 발신자 불명의 그림 편지를 받는다. 늘 주머니에 그림 편지를 넣어 다니는 그는 카지노에서 만난 노부인이나 ‘K’와 술을 마시거나, 카지노에 딸린 호텔에서 탄광 굴속이나 사택을 찾아 해매는 환각을 경험한다. 그는 자신이 사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여전히 20년 전 사북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이에 반해, 「검은 하늘을 이고 잠들다」는 탄광촌에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단지를 세우고 광부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처사에 대항하여 위령제에서 국회의원과 각급 기관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거나 카지노에 돌을 던지며 시위하는 사북 주민 ‘사노맹’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들이 사북사건 관련 증언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장면이 있다. 영상 속 증언자들은 사건 이후 경험했던 고문과 욕설에 대해 고백한다. 이때, 사노맹 중 한 명인 ‘강씨’가 “세상이 변화긴 변한 모양이네. 텔레비전에 나와 저런 얘길 막 해도 안 잡혀가는 걸 보면.”(277)이라고 걱정하자, 당시 경찰에 끌려가 입에 담지도 못할 봉변을 당했던 ‘정선택’은 “저 양반들 방송 탔으니 이제 잡혀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278)라고 응수한다. 소설에서 이들의 발언은 사북사건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주민들이 국가 폭력에 대해 여전히 공포와 불신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작품에서 이들은 폐석산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땅 밑에서 퍼 올린 그것이 “살아 있거나 이미 죽은 모든 광부들의 무덤”(308)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천민자본주의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사북사태”(284)를 대비하고 조직력, 정신력, 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폐증 환자로 병원에 들어간 옛 동료들은 이들의 뜻에 동조

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들은 위령제에서의 계란 투척 사건, 카지노에서의 폐석 투척 사건 등으로 유치장 신세를 면치 못한다. 게다가 이들은 카지노 사장이 경찰서에서 전달한 위로금을 거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상태다. 사북사건의 트라우마, 석탄 시대 호황기에 대한 향수, 현재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다 뿔뿔이 흩어진다.

유치장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사노맹 대장 ‘박종포’는 폐광된 광업소 광원 휴게실에 들어가 촛불을 밝혀 놓고 그곳이 “석탄박물관의 호박(琥珀) 속”이며, 자신은 그 “호박에 갇힌 모기나 개미” 같은 “화석”(327) 같다고 생각하며 우울함을 느낀다. 그가 산업 폐허에서 느끼는 화석의 물질성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직 광부의 닫힌 현실과 이어져 있다. 낡은 광원 휴게실과 호박 그리고 전직 광부와 화석의 유비 관계는 사북사건 이후 탄광 노동자가 갇히고 방기되었던 경제적·사회적 현실을 들춘다.

김도연의 소설이 사북 지역 개발에 대한 사북 주민들의 오랜 불만과 저항감을 희화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씩씩함을 안겼다면, 이문영의 르포르소설 「소리 잃은 검은 기침: 석탄」은 “사북 항쟁”(22) 때 계엄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한 인물 ‘덕기 형님’을 통해 국가 폭력을 전면화했다. 그는 삼청교육대에까지 끌려갔다가 나와서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확인한다. 그는 ‘동원탄좌 푸른 작업복을 입고 화약 나르던 가방’을 등에 멘 채 산에 올라 봄나물과 오미자를 채취한다. 일을 잃은 광부들은 것처럼 폐사택에 살며 산에 오르고, “아파트 폐허 사이”에 채소를 심어 양식으로 삼는다.

이러한 재야생화 경관은 ‘자연적’ 질서와 ‘문화적’ 질서 사이의 구분에 도전한다.⁴³⁾ 산업 폐허의 물질적 잔재는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다양

43) Caitlin DeSilvey and Tim Edensor, op. cit., p. 477.

한 종들의 서식지이자 생존 수단이 된다. 소설 속 인물들은 이전의 질서에서 버려진 것들이 형성한 ‘틈새 야생지대’에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들의 노동 풍경은 사북사건 속 광부들의 시위를 폭력과 난동으로 타매했던 정치적 낙인의 시간성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광부복을 입은 채취자들, 잡초 사이에서 자라는 채소는 폐광촌을 방치된 곳으로 정체화했던 경제적 시선을 모호하게 만든다.

앞선 소설들이 ‘남성’의 관점에서 사북사건을 조명한다면 이옥수의 『내 사랑, 사북』과 최은미의 『김춘영』은 여성의 관점에서 서사화된 작품이다. 사북항쟁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집회 참여, 행진, 수습이었다.⁴⁴⁾ 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면서 그간 간과되어 온 사건 참여자의 목소리에 실감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옥수의 소설은 중학생 소녀의 관점에서 사북사건을 기억하는 청소년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수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수하가 짝사랑하는 ‘정옥 오빠’이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정옥은 사북사건 때 공수부대 투입에 대응해 광부들이 무기고와 화약고를 점거하고 무기가 다른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 정채 모를 인물을 작가가 재구성한 것이다. 사북사건 당시 광부 대표였던 이원갑의 증언에서 이 인물은 “어떤 사람”⁴⁵⁾으로만 등장했다. 작가는 그를 사북 탄광에 일하러 들어온 젊은 외지 청년으로 그려 사건의 폭력성 속에서도 어린 소녀가 그 시절을 설렘과 위안의 순간으로 기억하게 구성했다. 하지만 계엄군에 끌려가는 정옥을 보고도 수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기에, 사북사건에 대한 수하의 기억은 억압적 현실 속에서 무력했던 자신과 첫사랑의 실패를 겹쳐 보는 비애를 내포하게 된다.

44) 장미현, 「사북항쟁의 여성들: 사라진 역센 여자들과 말하는 여성들」, 역사문제연구소민중사 반사북팀 편, 앞의 책, 128면.

45) 이원갑 외, 『1980년 사북: 항쟁의 발발과 명예회복 과정』, 선인, 2020, 114-115면.

소설에서 정옥은 수하를 계몽하는 위치에 선다. 수하는 광부 측 대표로 앞장선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광산촌에도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의심했던 인물이다. 수하는 ‘도급제’의 억압과 ‘암행독찰대’⁴⁶⁾의 감시 속에서 일하는 아빠의 사정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런 수하에게 정옥은, 힘들게 일한 만큼 대우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면서도 무시당하고 짓눌려 온 광산촌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정당한 해결 방법을 모르고 저들의 엄청난 힘에 대항하기에는 너무 약하다’⁴⁷⁾고도 말한다. 이처럼 작가는 정옥의 입을 빌려 사북사건의 의미와 한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작가는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광산촌 내부의 억눌린 “마음”들을 표면화한다. 무엇보다 정옥 자신이 광부로서 느끼는 ‘창피함’을 수하에게 고백하고 있어 석탄 시대 산업전사로 미화되었던 광부의 내적 현실을 드러낸다. 이것은 작가가 사북사건을 항쟁으로 정당화하는 편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수하네 가족은 “계엄군들이 짓밟고 또 짓밟아 익은 감자처럼 온몸이 찌그러진 아빠”(198)와 함께 1980년 겨울 사북을 떠난다. 소설에서 수하는 그 뒤로 한 번도 사북 사람들을 만나 본 적도, 사북에 간 적도 없지만 “검은 땅의 잔혹했던 봄날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옥수의 소설은 사북사건에 대한 수하의 기억이라는 개별자의 진실에서 출발한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전달된 기억은 동원탄좌 광부들의 비참한 현실과 억울함에 대해 독자들이 신뢰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게 만든다. 사람들을 쫓아 데모한 수하는 라디오에서 광부와 광부 가족들을 “폭도”라 지칭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북 사람들은 모두 졌다!”(172)고 독백한다. 인물의 이러한 내면은 수하와 같은 어린 학생들까지 폭도로 몰아갔던 국

46) ‘암행독찰대’는 동원탄좌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노무 관리 방법이었는데, 말 그대로 ‘몰래 숨어서 광부와 그 가족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었다. 문민기, 「탄광의 ‘죽음’들과 사북항쟁의 발발」, 역사문제연구소소민중사반사북팀 편, 앞의 책, 83면.

47) 이옥수, 『내 사랑, 사북』, 사계절, 2005, 157면.

가의 이름 붙이기, 즉 사복사건에 대한 아카이빙과 그것의 폭력성을 일깨운다. 작가는 그 이름 붙이기의 폭력 앞에서 소녀가 느낀 낭패감과 무력감을 서사화하여, 국가의 아카이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법을 세우고 지키는 아카이브 본래의 제정적(institutive)이면서 보존적(conservative)인 기능⁴⁸⁾과 그것에 개입하는 소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카이브의 관리자인 국가는 애도할 만한 것을 기록하고 애도되지 못할 것들을 파괴하거나 해독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애도의 위계화를 감행한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고의로 삭제하고 부인하는 한편 다른 애도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서사 유형인 ‘서사적 페티시즘(narrative fetishism)’으로 설명될 수 있다.⁴⁹⁾

최은미의 소설 「김춘영」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아카이빙에 내재된 위계화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소설은 ‘지역과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 연구팀에서 그간 광부의 가족으로만 소환되던 탄광촌 여성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생애사 작업을 위해 채록자인 ‘나’가 ‘김춘영’을 인터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이번 프로젝트가 “그 사건에서 ‘여성 경험의 특수성’을 수집하고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243) 하지만 ‘나’는 구술자들의 고유한 생애를 사건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나 김춘영의 구술이 사건의 증언으로 수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직 나와 김춘영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한, 김춘영과 나의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포착 가능한 어떤 진실에 접근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인터뷰에 임하며 ‘나’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내밀하고 고요하게, 선을 잘 지키면서”(245)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라 계획한다. 하지만 4월의 폭설로 길을 잃은 등산객 부부와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의 방문으로 그 계획은 어그러진다.

‘나’는 인터뷰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권위를 잡고 있을 필요”를 느끼며 김춘영을 “선생님”으로 부른다. 그리고 운탄고도를 따라 펼쳐지는 폐광촌

48) Jacques Derrida, op. cit., p. 12.

49) 복도훈, 『눈먼 자의 초상』, 문학동네, 2010, 494-495면.

스토리텔링을 차근차근 흡수하며 화운령까지 걸어온 등산객 부부는 ‘김춘영’과 ‘나’의 관계를 빠르게 이해한다. 그들은 김춘영을 “탄광촌의 산 증인”으로 치켜세우며 김춘영이 광부의 아내였는지, 여성 광부였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김춘영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이다.

누구보다 오래 이 화운령 골짜기에 살면서 탄광촌의 흥망성쇠를 몸소 겪었지만 김춘영은 광부의 아내도, 여성 광부도 아니었다. 사십오 년 전 화운령을 중심으로 일어난 광부들의 노동쟁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에 구금되어 고문을 받았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로 얘기되는 광부와 광부의 가족 어디에도 김춘영은 속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던 탄광촌의 호황기에, 화운령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긁어모은 건 김춘영이었다고 했다. 다섯 구술자 중 한 구술자의 말이다. 아직 편집 전인 날것의 녹취록에서, 구술자는 여전히 골이 깊게 남아 있는 듯 김춘영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환기되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내가 여직 이려고 살고 있는데, 젊어서는 탄가루 뒤집어쓰고 늙어서는 카지노 화장실 청소하면서, 내가 여직도 죽지를 못하는데.” “산꼭대기에 고상하게 집 지어놓고.” “그 여자가 ○ ○ ○○○○……”⁵⁰⁾

사북사건을 항쟁으로 역사화할 때,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광부나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최은미는 광산촌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인물을 서사의 중심에 둔다. 사북 지역에는 정식 상호를 가진 130여 개의 크고 작은 술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 공간을 통해 광부들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며 지배계급에 대한 일상적 저항의 정치를 실현했다. 읍주는 혹독한 노동을 이겨내는 방법이었기에 가정과 직장에서도 묵인된 측면이 있었다.⁵¹⁾ 김춘영이 합동수사단에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던 것은,

50) 최은미, 「김춘영」, 『창작과비평』 208, 창작과비평사, 2025, 249면.

51) 박철환, 「사북항쟁연구: 일상·공간·저항」,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6-40면; 문민기,

당시 광부들의 모의 장소로 술집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김춘영에 대한 다른 여성 구술자의 반응이다. 그들은 김춘영에게 피해자로서의 동질감이 아니라 반감과 피해의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여기에는 돈을 많이 벌며 화운령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는 김춘영과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상대화하는 시각이 작동한다. 구술자의 이러한 증언은 항쟁의 피해자들을 단일한 감정 공동체로 볼 수 없음을 뜻한다. 이 대목에서 대민지원 나온 군인들과 등산객 부부가 나누는 대화 중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피아식별”(254)이란 단어가 중요해진다. 김춘영은 사복사건을 광업소와 노동자의 갈등으로 보든,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보든, 피아식별의 구도로 사건을 이해할 때 그 위치가 불분명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의 모호성은 면담자인 ‘나’에게도 나타난다. 관광객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나’는 ‘김춘영’의 과거에 대해 묻는 부부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청자’에서 ‘화자’라는 시험대로 건너가게 되었음을 느낀다. 여기에는 아카이브화 자체에 내재한 긴장·모순·아포리아가 작동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은미가 ‘김춘영’이 아닌 ‘나’의 시점에서 소설을 전개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구술자와 면담자가 아무리 “라포”(242)를 형성한다 해도 “배운 여자”라는 권위를 가진 면담자는 증언자의 말을 전하는 매개적, 기능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등장으로 상황은 급변한다. 이 소설에서 일인칭은 대상을 관찰하는 시점일 뿐 아니라, 소설에서 주체가 타자를 소유하는 윤리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기색이 이전과 다른 김춘영을 데리고 방에 들어간 ‘나’는 김춘영한테서 흘러나온 소변을 목격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 안부나 기억에 관해서도 묻지 않은 채 그 소변이 내 무릎에 와서 고일 때까지 그대로 앉아

앞의 책, 71-72면.

있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 ‘나’는 직업적 상호작용의 강력한 도구인 라포리는 개념을 넘어선 내적 친밀감, 타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게 된다. ‘나’에게 어떤 권위도 피아식별의 경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김춘영은 ‘나’와의 면담을 마칠 때마다 늘 “쓸데없는 건 다 빼줘요”라고 말해서 “쓸 데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권한”(257-258)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애초부터 김춘영의 생애와 기억에서 ‘버려질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구술과 채록,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지역자료총서”를 발간하는 일은 보존을 단일하고 명료한 서사로 포장하려는 욕구에 의해 주도되며, 그 과정에서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기억과 경험 형태들이 지워질 위험을 내포한다. 이것은 산업 폐허의 유물화가 안고 있는 위험과 같다. ‘나’가 김춘영의 잠든 모습을 보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내 현장에서 걸어 내려왔다”(258)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일과 같다.

소설은 “폐기 가능한” 혹은 “애도 불가능한” 존재로 간주된 사람들의 신체가 대중에게 보이게 만든다. 소설 속 그 신체들은 독자에게 “우리는 공적 삶의 그림자 속으로 침묵하며 숨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의 공적 삶을 구조화하는 명백한 부재가 되지 않았다”⁵²⁾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가 아카이빙의 불완전성을 감내하면서 아키비스트로서 소설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광지화된 폐광촌을 통해 한강부터 최은미가 보여주려 했던 것은 버려질 것 없는 삶, 버려질 수 없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김춘영이 여전히 사복에 살며 등산객과 군인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고추장 양념구이를 먹이는 현대의 마음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황곡(태백) 광부들의 삶을 사진으로 남기

52) 주디스 버틀러, 김웅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220면.

는 사진작가 ‘장’의 상실감과 예술적 욕망, 병원에서 음주와 흡연으로 입원 생활을 연장하는 광부를 눈감아 주는 보령 사람들의 연민과 맞닿아 있다. 그러한 열림, 공허, 흔들림 같은 정동적 강도는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이 기존의 아카이빙 비판을 넘어 사복, 태백, 보령과 같은 탄광 지역을 추출의 논리 너머에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저항성을 지닌다. 이때 소설은 국가로부터 버려진 존재를 품고 위로하는 지역으로 탄광촌을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과거를 회복하려는 시도의 불완전성을 방증한다.

실패와 방치의 상징이며 무관심과 사회적 정체의 물적 증거로서의 폐광촌에서 작가들은 파편적이고 중층적인 흔적들을 쫓아 타자성과 대면하고, 감각적이고 상상적인 관여를 이끈다. 그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봉기를 종결된 상태로 보지 않고, 그것들이 여전히 현재에 잔존한다는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 시대착오)적 시선’으로 폐광을 그린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폐광을 특정 시대의 증거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고정된 역사적 맥락에서 해방시킨다.⁵³⁾ 그러므로 소설 쓰기는 기존 아카이브의 지배적 질서 속에서 자료들을 추출하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질적인 것들을 의도적으로 재배열하고 관계지음으로써 기존의 서사와 다른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과 정동의 아카이브로서의 소설은 과거의 해체적 기록이면서 미래를 향한 질문이다.

53)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전통적 아카이브의 이미지를 아나크로니즘적 몽타주로 병치, 재배열하는 예술적 작업이 기존의 서사와 다른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아나크로니즘적 잔존을 통해 이미지를 고정된 역사적 맥락에서 해방하는 일이라 언급했다. 그는 사진과 같은 시각 예술을 둘러싼 이러한 시도와 결과를 아틀라스라 칭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관점을 차용하되, 아틀라스가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세계를 다르게 보도록 이끄는 도구로 기능하는 한편, 이미지 다시 읽기의 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썼다. Didi-Huberman, G., *Atlas, or the Anxious Gay Scienc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정현우, 『필리핀의 민중 봉기와 탈식민 아카이브: 키리 달레나의 <지워진 슬로건>과 <새를 위한 닷>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12(4), 한국지역문화학회, 2025, 382-384에서 재인용).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작가들이 폐광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사회적 정체성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을 탐구했다. 앞서 살핀 소설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폐허의 비판적 힘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한다. 폐허와 폐허화를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 짓고 장소의 변화를 서사화하는 일은 폐허의 물질적 특성이 어떻게 이전과 다른 감각적·정서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해체된 인프라, 버려진 공간이 새로운 네트워크와 집합체에 접속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외환위기 이후 발표된 탄광 소설은 신자유주의적 진보의 파멸적 현재를 폭로함과 동시에 폐허가 서사에 활용되는 현재적 삶의 조건들을 성찰하게 이끈다. 작가들의 소설에서 폐광촌은 단순히 무너져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고 재조립되며 재해석된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영광스러운 역사, 점유의 욕망과 범죄의 온상 등 폐허는 모순된 충돌과 끌림을 야기한다. 서사 안에서 폐허는 일시성/지속성, 자연/문화, 미(美)/추(醜), 매력/혐오, 권력/취약성, 방치/점유, 존재/부재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를 전복하고 붕괴시킨다. 이 진동하는 정체성은 폐허화 과정이 지속되는 한, 어떤 의미도 도전받지 않고 지속될 수 없음을 뜻한다.⁵⁴⁾

그런 맥락에서 폐광 시대 탄광 소설 쓰기는 폐허화되어 가는 탄광을 둘러싼 기억과 정동을 아카이빙하는 일이면서, 박물관이나 연구단체 등 공공기관의 아카이빙 작업을 떠받치는 역사적 시선에 맞서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폐광촌을 관광 자원화하는 관리주의적 공공 담론에 맞서는 작업이다. 그리고 소설 쓰기는 아나크로니즘적 시선을 통해 억압되고 변주되는 잔존의 역동성과 저항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은 사건을 이해하는 단선적 시간 질서, 즉 고정된 역사적 맥락과 이미지에 저항한다. 이것

54) Caitlin DeSilvey and Tim Edensor, op. cit., p. 479.

이 바로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이 지닌 카운터 내러티브로서의 의미이다.

비록 폐허의 비판적 힘은 취약하고, 희석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서사를 통해 추구된 재감각화는 기술 관료주의와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식을 자극한다. 폐광 시대에 탄광이 작가적 실험과 사색의 대상으로 부상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재편과 창조적 파괴 이면에서 일어난 인간과 비인간 소외를 드러내기 위해 탄광촌이 유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탄광촌을 실천과 행동의 물질적 장소로 다루는 서사적 실험은 탄광 그 자체뿐 아니라 탄광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의 복잡성과 유동적 의미를 포착하고 부각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으로 공식적 서사에 도전하는 태도, 박물관이나 카지노처럼 상품화되고 미화된 도시적 공간을 다르게 상상하려는 시도, 그리고 타자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관계적 생태학이 폐광 시대의 탄광 소설에 담겨 있음을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탄광 서사는 발전과 개발 중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권력과 저항, 주변화와 회복/전복 안에서 어떻게 순환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유의미한 시각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김금희,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창작과비평사, 2014.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김도연,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학동네, 2002.
 김도연, 『십오야월』, 문학동네, 2005.
 김종광, 『낙서문학사』, 문학과지성사, 2006.
 이문영, 『웅크린 말들』, 후마니타스, 2017.
 이옥수, 『내 사랑, 사복』, 사계절, 2005.
 최은미, 『김춘영』, 『창작과비평』 208, 창작과비평사, 2025.
 한강, 『검은 사슴』, 문학동네, 2017.

2. 국내외 논저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사복읍지』, 정선군 사복읍사무소, 2012.
 그램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김나현, 「탄광 노동 문학과 정동의 정치학: 산업화시기 탄광 노동 재현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7-34면.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롭 너슨, 김홍옥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박철한, 「사복항쟁연구: 일상·공간·저항」,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형신, 「강원 폐광 지역의 지역 정치와 갈등 구조: 석탄 합리와 사업에서 카지노 건
 립까지」, 『사회와 역사』 66, 한국사회사학회, 2004, 152-192면.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테제」,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6.
 복도훈, 『눈먼 자의 초상』, 문학동네, 2010.
 빅터 샤우, 이종식 역, 『탄소 기술관료주의』, 빨간소금, 2024.
 사복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사복·고한 역사 연구』, 선인, 2001.
 황인옥·박다영·한정원, 『사복항쟁과 국가폭력』, 지식공작소, 2021.
 서봉만,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탄광촌 주민의 적응 양식」, 『지리학논총』 21,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1993, 71-85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편, 『석탄광폐광지원백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폐광에 따른 산탄 지역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 태백·정선

-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1.
- 신진숙, 「탄광서사를 통해 본 산업 폐허와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30(3), 한국 문화역사지리학회, 2018, 74-91면.
- 역사문제연구소민중사반사북팀 편, 『1980년 사북 항쟁과 일상의 사회사』, 선인, 2021.
- 이원갑 외, 『1980년 사북: 항쟁의 발발과 명예회복 과정』, 선인, 2020.
- 이한빛, 「노동운동 시대의 탄광 재현: '사북사건' 이후 탄광소설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1, 역사문제연구소, 2019, 135-175면.
- 정여울 · 신형철 · 복도훈 · 김미정, 「좌담: 상처의 승화에서 욕망의 잔혹극까지: 2005년 가을의 한국소설」, 『문학동네』 45, 문학동네, 2005.
- 정현우, 「필리핀의 민중 봉기와 탈식민 아카이브: 키리 달레나의 〈지위진 슬로건〉과 〈새를 위한 덧〉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12(4), 한국지역문화학회, 2025, 379-398면.
- 조명기, 「국가의 트라우마와 소설의 대응」,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학회, 2011, 461-486면.
- 주디스 버틀러, 김웅산 · 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 티머시 미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역, 『탄소민주주의: 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생각비행, 2017.
- 피에리이브 고메즈, 김진식 역, 『투기자본주의: 성장의 약속은 계속될 것인가』, 민음사, 2024.
- 홍용기, 「탄광문학에 나타난 '막장'의 장소성」, 『어문연구』 117, 어문연구학회, 2023, 321-339면.
- Cupers, Kenny and Markus Miessen, *Spaces of Uncertainty: Berlin Revisited*, Basel: Birkhäuser, 2018.
- Derrida, Jacques,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trans. Eric Prenowitz, *Diacritics* 25, 1995: 9-63.
- DeSilvey, Caitlin and Tim Edensor, "Reckoning with rui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4), 2012: 465-485.
- Edensor, Tim, *Industrial ruins: Spaces, aesthetics, and materiality*, Oxford: Berg, 2005a.
- Edensor, Tim, "The ghosts of industrial ruins: Ordering and disordering memory in excessive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6), 2005b: 829-849.
- Edensor, Tim, "Waste matter: the debris of industrial ruins and the disordering of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0(3), 2005c: 311-332.
- Solà-Morales Rubió, Ignasi, "Terrain vague". Davidson C. (ed.) *Any Place*. Cambridge,

MA: MIT Press, 1995: 118-123.

Stéphane, Tonnelat, “‘Out of frame’: The (in)visible life of urban interstice,”
Ethnography 9(3), 2008: 291-324.

<Abstract>

Coal Mine Fiction in the Post-Mining Era
– Archiving Memory and Affect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Jo, Yunjeong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significance of writing as a reflect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as well as an archive of memory and affect, through images of industrial ruins in post-IMF crisis coal mine fiction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e works of authors-including Han Kang, Kim Do-yeon, Kim Jong-kwang, Lee Ok-su, Kim Kum-hee, Kim Ki-tae, Lee Moon-young, and Choi Eun-mi-who,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ave set their narratives in mining regions or the Sabuk Uprising, or featured miners as central characters. The images of industrial ruins in these fictions offer a possibility of overlapping the anxieties and exclusions caused by global capital and economic recession with the history of Korea's carbon energy economy.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mages of abandoned mining towns through the concept of "industrial ruins."

The authors visualize the oppressive nature of state power and capitalism, as well as the ontological deprivation of human beings, through the damaged bodies of miners. Furthermore, by projecting public strategies that historically and pragmatically order abandoned mining villages alongside speculative capitalism, the fictions reveal the contradictory impulses and attractions evoked by ruins—such as painful pasts versus glorious histories, and hotbeds of crime versus desires for occupation. In these fictions, ruins are deconstructed, reassembled, and

reinterpreted. The authors adopt an anachronistic gaze where the past persists in the present, refusing to limit the image of the coal mine to mere evidence of a specific era. Through compassion and hospitality between characters, they lead us to contemplate mining regions beyond the logic of extraction. Coal mine fictions of the post-mining era present historical truths distinct from dominant memories by rearranging and interconnecting seemingly irrelevant and disparate elements. Ultimately, they provoke a critical reflection on contemporary crises. Therefore, these narratives serve as a deconstructive record of memory and affect regarding mining regions and hold significance as a counter narrative against the dominant order.

Key words: abandoned mine (town), coal mine fiction, miner, ruin, Sabuk Uprising, archiving, memory, affect, counter narrative

투 고 일: 2026년 2월 17일

심 사 일: 2026년 3월 9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13일

수정마감일: 2026년 3월 28일